

# 믿었던 황동하, 초반 '와르르'



KIA 김도영이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3회말 솔로 홈런을 터뜨린 후 베이스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롯데전 3대8...연승 '제동'

### 수비 난조에 '흔들' 3이닝 6피안타 5실점 '시즌 첫 패배' 실책 3개·볼넷 8개 '자멸'...김도영, 15호 홈런 빛바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패 탈출의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수비 실책과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KIA는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3-8로 패했다. 전날 3연패를 끊었던 4위 KIA는 다시 주춤했다. 3위 KT와는 45경기 차, 5위 한화와는 1경기 차다.

선발 황동하는 3이닝 6피안타 3사구 2탈삼진 1피홈런 5실점(4자책)으로 시즌 첫 패배(6승)를 안았다. 볼펜에서는 곽도규와 이형범, 최지민, 김범수가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한재승은 1실점, 김건국은 2실점(1자책)했다. 타선에서는 7안타가 나왔다. 김도영은 시즌 15호 홈런을 터뜨렸다. 이 부

문 LG 오스틴과 홈런 공동 선두다. 나성범과 한준수가 멀티 안타를 기록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KIA는 수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실책 3개를 기록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실책성 플레이까지 더해지며 흐름을 내줬다. 마운드도 8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1회부터 흔들렸다. 2루 도루 상황에서 나온 포수 송구 실책으로 무사 3루에 몰렸다.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2회에는 2사 1·2루에서 적시타를 맞았다. 이후 볼넷으로 만루를 허용했고, 밀어내기 볼넷까지 나오며 점수차가 벌어졌다.

KIA는 곧바로 반격했다. 2회말 무사 1·2루에서 한준수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3회 다시 실점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KIA도 물러서지 않았다. 3회말 김도영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로 응수했다.

하지만 4회가 뼈아팠다. 번트 처리 과정에서 나온 투수의 실책성 플레이 2개가 위기를 키웠다. 결국 1사 만루에서 내야 땅볼로 추가 실점했다.

KIA는 7회말 김호령의 1타점 2루타로 점수차를 좁혔다. 그러나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다. 오히려 8회 밀어내기 볼넷, 9회 적시타와 실책까지 겹치며 추격 동력을 잃었다.

KIA는 4일 새 아시아쿼터 투수 시라카와를 선발로 예고했다. 주중 워닝시리즈가 걸린 경기다.

한편, 이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2만500명의 관중이 입장하며 매진을 기록했다.

KBO 리그는 이날 역대 최소 경기인 275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총 관중은 504만1천801명,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8천334명이다. 종전 최소 경기 기록은 지난해 294경기였다.

이날 5개 구장에는 모두 10만5천441명이 입장했다. 잠실(2만3천700명), 대구(2만4천명), 광주(2만500명), 수원(1만8천700명)은 매진됐다. 문학에는 1만8천491명이 자리했다.

/주홍철 기자

## '변화구장작' 시라카와, 오늘 롯데전 출격...선발·롤리프 활용 시험대

# "이닝 이터로 가는 길...관전은 제구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새 아시아쿼터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가 드러머 모습을 드러낸다.

시라카와는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2년 만의 KBO리그 복귀전이다.

KIA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첫 경기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24년 SSG와 두산에서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된 경험이 있다. 12경기 57.1이닝을 소화했고, 4승 5패 평균자책점(ERA) 5.65를 남겼다.

이후 팔꿈치 인대정합수술을 받고 약 1년간 재활에 전념했다.

올 시즌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5경기 모두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1.08, 34탈삼진을 기록했다.

부상에 대한 우려는 사라진 상태다. 지난 2일 기자단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 팔꿈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관심은 첫 투구에 쏠린다. 첫 상대는 롯데다. 좋은 기억은 아니다.

그는 2024년 6월 7일 SSG 소속으로 나선 롯데전에서 1.1이닝 7피안타 3볼넷 8실점(7자책)으로 무너졌다.

KBO 무대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기 중 하나다.

시라카와 역시 "롯데전은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투구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KBO 경험은 분명 강점이다.



KIA 시라카와가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볼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국내 타자들의 성향과 구장 환경을 이미 경험했다. 새 외국인 투수들과 비교하면 적응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관전은 제구다.

SSG 시절 2.1이닝 동안 볼넷 9개를 기록했다. 반면 두산 시절에는 3.1이닝 동안 볼넷 2개를 허용했다. 특히 7월 한 달간 16.1이닝 동안 볼넷 18개를 내주며 흔들렸다.

결국 스트라이크존 승부가 중요하다. 강점은 변화구다. SSG 시절 포크볼 피안타율은 0.136이었다. 두산 시절 커브 피안타율은 0.176,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0.154를 기록했다. 반면 포심 피안타율은 각각 0.333과 0.288이었다.

변화구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결국 직구가 얼마나 통하느냐가 관건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이병호 감독은 3일 경기 전 브리핑에서 "현재 시라카와 컨디션이 매우 좋은 편"이라며 "구속은 140km 후반에서 150km 초반까지 나오고 있다. 공의 무브먼트도 좋고, 그동안 본인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KIA가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기록이 아니다.

꾸준한 이닝 소화가 우선 과제다. 상황에 따라 롤리프 역할도 가능하다. 선발에만 묶여들 생각은 없다.

마운드 운용의 폭을 넓혀줄 카드는 평가다.

첫 시험대는 롯데다.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홍철 기자

## '축구로 함께 한 특별한 하루'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성료



프로축구 광주FC가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한 '제2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광주는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500명의 축구 꿈나무와 학부모가 축구로 함께 한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을 개방해 프로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이 천연잔디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페스티벌은 초등학교 1-2학년부와 3-4학년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며 실력을 겨루고 경쟁보다 화합과 즐거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광주FC 유소년재단 축구인재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도경건설주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참가팀 17개 팀 가운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소년 선수 1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경기장 곳곳에는 푸드트럭과 각종 게임 이벤트가 운영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기념 메달과 기념품이 제공됐다. /박희중 기자

## 광양시청 불링팀 등 도내 16개 팀 문체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남 도내 직장운동경기부가 국비 공모사업에서 대거 선정되며 전문체육 경쟁력 강화에 탄력이 붙었다.

전남도체육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서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7개 단체 16개 팀이 최종 선정돼 6억5천37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전국 149개 단체, 495팀이 신청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청(씨름), 목포시청(복싱, 육상, 하키), 여수시청(요트, 육상, 유도, 롤러), 순천시청(소프트테니스, 양궁, 유도), 광양시청(육상, 불링), 한국전력공사(탁구, 육상), 진도군청(육상) 등 7개 단체, 16개 팀이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여수시청이 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확보했으며, 목포시청 1억3천300만원, 순천시청 1억925만원, 전남 연고 한국전력공사 8천5



지난달 열린 제28회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기 남자일반부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시청 백승민(왼쪽)과 공동 3위를 차지한 박상혁. <전남도체육회 제공>

50만원, 광양시청 6천600만원, 영암군청 4천만원, 진도군청 2천945만원 등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들의 노력과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무대에서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5-7일 안방 삼성전은 '달빛시리즈'"

### 팬사인회 등 이벤트 풍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5-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을 '달빛시리즈'로 치른다.

이번 달빛시리즈는 양 팀의 상징색을 혼합한 보라색과 달빛을 메인 테마로 해 기획했다. 먼저 특별한 시구 행사가 열린다. 5일은 가수

조빈과 광주FC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안영규가, 7일은 걸그룹 이즈나의 멤버 방지민과 코코가 각각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와 시타를 선보인다. 6일은 현충일을 기리며 국가유공자가 시구, 시타, 시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달빛시리즈' 기간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된다.

첫날인 5일에는 전 관중을 대상으로 양 팀 화합의 의미를 담은 보라색 응원용 반다나를 나눠준다. 5일과 7일 경기 후에는 양 팀의 합동 뒤풀이 응원전이 열린다. 특히 5일 경기는 가수

조빈이 뒤풀이 응원에 함께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중양출입구 앞은 메인 테마를 활용한 포토존이 꾸며져 인증샷 명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3연전의 마지막 날인 7일 경기 전에는 KIA 타이거즈와 야구 박재현과 삼성 라이온즈 외 야수 박승규의 합동 사인회가 진행된다.

시리즈를 기념해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디지털 브랜드인 '코로나인'과 함께 연고 지역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협업도 진행한다.

선수단은 3연전 동안 서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팀스토어를 통해 아크릴 미니키링, 와펜, 아크릴 웨이거그립등 등의 기념상품 3종도 판매한다. /주홍철 기자